

# News & News



## AGD경과조치시행소위 구성 완료 2010년 건강박람회 참여 대국민 홍보기로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시행 경과조치시행소위원회를 구성 완료했다.

치협은 3월 16일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AGD제도 경과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AGD 수련위원회 내에 '경과조치시행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소위 위원장은 국문아 AGD 수련위원회 위원장이 맡았으며 간사는 조성욱 법제이사, 김기덕 교수(연세치대), 위원으로는 유석천 총무이사, 김 선 군무이사, 이상복 홍보이사, 윤현중 교수(가톨릭대 성모병원), 이의석 교수(고대구로병원)가 위촉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일부지부에서 AGD 경과조치 연기 등 이견이 있는 것과 관련, 지부장 회의를 열어 AGD 제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또 최근 공중보건협의회의 경우 공중보건의의 경우 군무위원회나 지부소속으로 돼 있지만 복무기간 중 근무지 변경이 가능하고 3년 복무 후 이동하는 등의 문제로 지부가입 및 회비납부에 무리가 따르는 만큼 치협내 독립지부 또는 독립협의회 별도 편성을 요구함에 따라 정관상의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사회에서는 아울러 복지부 주최로 5월 열리는 건강박람회 시 '구강홍보전시관' 구성을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기로 했다. 2010년 건강박람회는 10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행사로 치과계에서는 치협을 위시한 구강보건사업지원단, 대한구강보건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치과기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이 '구강보건홍보협의체'를 구성해 전시관을 마련, 대국민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의 필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사회에서는 또 (주)아모레퍼시픽이 3가지 신제품 칫솔에 대한 추천을 의뢰함에 따라 이를 승인했으며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광철 교수(동서신의학병원 소아치과)를 추가 위촉했다.

더불어 서울지부가 SIDEX 2010에 치협의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음에 따라 이를 승인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부터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위탁 받은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을 2010년 보수교육평점 인정기관으로 승인했다.



## "실기시험연구 등 국시원 발전 노력" 이수구 협회장, 만장일치 국시원 이사장에 선출

이수구 협회장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이하 국시원)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국시원은 3월 29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4차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에 이 협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리 및 시험제도의 조사·연구·개발 등을 통해 국가시험 시행의 전문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등 국내 모든 보건의료인 20개 직종의 시험을 관장하고 있다.

이수구 신임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 김건상 국시원 원장을 도와 국시원이 한층 더 발전하는데 노력하겠다"면서 "만장일치로 지지해준 보건의료계 단체장 등 모든 이사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 신임 이사장은 "이번 이사장직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의 양보와 배려로 맡게 된 것"이라며 신경림 회장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이 신임 이사장은 "최근 국시원의 성공적인 의사실기시험 도입과 시행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타 직종의 실기시험 도입과 관련해서도 연구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신임 이사장으로서의 포부도 밝혔다.

이 신임 이사장과 함께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치과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순철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도 신임 이사로 선출돼 향후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발전적 개선도 기대되고 있다.

이 신임 이사장과 최순철 신임 이사 선출 외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윤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강윤숙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김원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조남수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송준관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등도 국시원 신임 이사로 선출했으며, 부유경 대한의무기록협회장 및 서란희 대한조산협회장을 신임 감사로 선출했다.

새롭게 선출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내달 8일부터 2013년 5월 7일까지 국시원의 발전을 위해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News  
& News

## 치과의사 동호회 만들기

## '문복 홈페이지' 이용하면 알거다득

치협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정애리·이하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동호회를 발족하면 지원금과 함께 푸짐한 상품을 협찬 받을 수 있다.

정애리 위원장은 위원회 홈페이지 문화활동 코너를 통해 치과의사 회원들이 동호회를 발족하거나 운영하면 20만원의 지원금을 후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호회 모임 시 상품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각각의 문화활동 동호회는 위원회 홈페이지 행사캘린더 코너를 통해 각 모임별 행사일정을 편리하게 공유할 수도 있다.

정애리 위원장은 "이제 조금씩 위원회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회원

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좋은 정보들이 공유될 수 있다"며 "이왕이면 편리한 웹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 홈페이지 봉사활동란 '의약품, 물품 지원받기' 코너에는 최근 'toothmat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회원이 서울 광진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원을 구하는 글을 올렸다. 광진구 나섬교회(02-446-4195)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무료치과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봉사진료를 하거나 경제적 후원이 가능한 회원을 기다리고 있다.

News  
& News

## 협회대상 공로상 전훈식 전 치협 부회장 수상

## 치과보험·국민구강보건 증진 기여

전훈식 전 치협 부회장이 제34회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치협 협회대상(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월 31일 신라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인철·지현택·김정균·이기택·정재규 고문, 안성모 명예회장 등 치협의 역대 협회장들과 이원균 치협 부회장, 조성욱 법제이사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또 협회에서는 이수구 협회장과 유석천 총무이사가 배석했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 선정위원들은 지현택 고문을 의장으로 선출

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 논의 끝에 후보자들 중 전훈식 전 치협 부회장을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기로 했다.

전훈식 전 치협 부회장은 1965년 서울치대를 졸업했으며 이후 43년간 치과의사로 활동하면서 치협 부회장(3회), 보험이사, 서울지부 부회장, 조사이사 등 치과계 내부 요직을 역임했고 대외적으로도 복지부 의료보험수거구조개선위원, 의료보험연합회 진료비심사위원, 서울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을 지내는 등 치과 의료보험 정책 발전 및 국민구강보건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News  
& News

## 이동치과병원 향후 운영방안 논의

## 남구협 실무위원회

치협을 비롯해 치과계 5개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이하 남구협)는 3월 29일 실무위원회를 열고 개성공업지구 협력구강병원 지원사업과 관련해 마련된 '이동치과병원'의 향후 운영방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실무위원회는 이동치과병원의 운영현황 및 추후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당초 취지대로 개성공업지구에서 이동치과병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남북정세에 예의주시하는 한편, 국내의 소외계층과 보건의로 취약계층을 위한 치과진료 봉사활동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치기협에서 제안한 치과기공실 차량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차기 회의에서 이동기공실 차량 마련과 관련해 소외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실무위는 각 단체별로 대북사업을 진행해 왔거나 진행해오고 있는 개인 및 회원단체 등도 조사해 효율적인 대북사업을 위한 논의의 장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누구나 남구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홈페이지 개설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또한 2009년도 남구협 분담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남북정세에 따른 대북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과 지난해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 각 단체별 남구협 분담금은 생략하기로 했다.

김홍석 치협 대외협력이사는 "남북정세에 따라 변화가 많지만 대북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 개성공업지구 측과의 지속적인 접촉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동치과병원의 효율적인 운영 등 남구협의 사업 전반에 대해 각 단체 실무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실무위에는 김홍석 치협 대외협력이사를 비롯해 이상복 건치 남북특위 위원장, 유홍근 치기협 사업이사, 김유호 치위협 기획홍보 이사, 이계우 치재협 사업이사 등이 참석했다.